

대덕클럽 김철환이사장 발표내용

대덕연구단지는 사십여년동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기존 연구중심이 아닌 성과중심의 단지로 거듭나야만 미래의 생존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대덕의 비전으로 벤처창업을 말할 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대덕에 실리콘밸리를 실현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덕은 실리콘밸리와 언어적, 경제적 환경이 다르다-영어와 달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실리콘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대덕은 실리콘밸리를 모방하는 것이 아닌 대덕만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요즘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창업에 대한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과 연구소가 집중되어 있는 대덕으로 연구원창업에 대한 관심과 기회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원창업기업을 멘토링 하다보면 대부분이 여전히 기술개발 중심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는 높지만 그 외의 창업에 대한 준비와 학습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창업은 매출을 전제로 하며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시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로 판매 가능하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연구소에서는 기술의 언어로 대화가 가능했다면 창업의 세계에서는 시장의 언어로 변경되어야만 고객과의 소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창업을 하고 엔젤투자나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는 것은 연구보고서와 다릅니다. 사업계획이나 투자제안이 시장에 기반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여전히 기술개발에 국한된 연구보고서 일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치있는 기술에 대한 사업화는 상업화의 장벽에 의해 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더불어 연구원창업에 대한 지나친 보호장치는 기업가로서의 성공의지를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인력양성, 자금지원 등 창업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투자를 통해 기술과 열정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대덕에서 보유한 기술과 인적인프라에 비해 우수한 창업기업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인프라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일례로 대덕의 우수한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기술창업가를 지원하고 창업생태계를 만들어나가고자 설립한 카이트창업가재단에서도 지금까지 투자실적을 보면 대부분 대덕보다는 수도권지역의 창업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덕은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 풍부한 인적자원, 그리고 정부의 자금지원과 더불어 제대로 된 창업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출발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내고 기술이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를 상용화 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가진 창업가를 육성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덕 내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